

[서 평]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 Stephen R. Taaffe,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년 -

Harold E. Raugh, Jr.*

딘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우리 마음 속에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전쟁지역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전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이 1950년대에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 싸우기로 하였던 전쟁 지역 중 가장 열악하고 저개발지역이면서도 원거리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한국전쟁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인내를 요구하고 극복해야 할 역경이 많은 분쟁이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분쟁의 도가니에 던져진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미 육군장군들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덜 훈련되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준비 안된 전쟁이었다.

Stephen R. Taaffe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의 역사학 교수이자 2011년에 발간된 ‘마살과 그의 장군들 : 제2차세계

*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역사담당

대전 당시의 미 육군 지휘관들의 저자)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첫 해에는 미 육군의 전쟁 수행은 다소 혼잡스러웠지만, “엄격한 군사적인 의미에서는 분쟁을 이기기엔 충분한 신뢰를 얻었다.”(3쪽) 이 저서의 연구 목적은 야전군, 군단, 그리고 사단급 제대의 미 육군 고위지휘관의 전쟁수행 능력과 부대통합, 임무완수에 대한 공헌을 조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서론, 본론으로 5개의 연대순/주제별 장 및 요약된 결론으로 나누어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다.

유엔군 사령부의 첫 지휘관은 미 육군의 전설적인 장군인 더글러스 맥아더 대장이었다. Taaffe는 그를 통찰력 있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고 묘사한다. 맥아더는 그의 젊은 시절에는 야망이 있고 용감하고 지적이었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말년에는 아침꾼들에 의해 둘러싸여 그의 조직에 대한 기여는 독선적이고 자기기만, 그리고 병적인 자기중심으로 변질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1쪽) 이러한 맥아더의 성향은 한국 전쟁의 첫해의 작전단계, 즉 공격과 방어단계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분위기와 효율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첫 해에 다른 미국 지휘관보다 더 많이 전장을 지배했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놀랄만한 무기력한 역할”을 했다. (207쪽) 결국 맥아더의 오만함과 불복종은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Truman)에 의해 해임으로 이어졌고 저자는 맥아더가 “한국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15페이지).

처음 두 명의 미 8군사령관들도 서로 다른 경험, 태도 및 성격을 가졌으며, 이것 또한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쳤다. 맥아더 장군은 워튼 워커 중장을 “성미가 고약하고 비 타협적인 아웃사이더”라고 여겼으나(28 쪽) 저자는 “워커의 용기와 충성심과 헌신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평가하였다.(28쪽) 그러나 맥아더는 워커를 해임하지 않았다. 아마도 미 8군사령관의 해임은 특히 1950년 10월의 중국 개입 이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올 것이라고 염려했을 것이다. 상호 신뢰의 결여는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방해하였고 1950년 12월 23일 워커 중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맥아더 대장은 매튜 릿지웨이 중장(인사이드 역할을 확실히 해냄)을 후계자로 보직하고 존경심과 아울러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릿지웨이 미 8군사령관은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사기가 저하된 부대를 장악하여, 전세를 승리로 이끌었다”(199쪽). 워커 사령관은 한국전쟁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군단과 사단 지휘관들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평범함을 용인했었던 반면, 더 무자비하고 민첩한 리지웨이 사령관은 (210쪽) 9명의 군단장과 사단장 중 6명을 보직 해임시켰지만 그들의 경력을 “보존”시켜주었다. 릿지웨이는 맥아더를 트루먼이 해임했을 때 그의 후임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행위가 이 책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의 깊이는 책에 포함된 다양한 의견과 특히 추가적인 참조에 의해 보증될 여러 장군들의 관계성과 서로의 견해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짙막한 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길고 많은 미주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950년 9월 15일에 감행된 ‘크로마이트 작전’이라는 명명된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글에서 저자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하고 계획하는 맥아더의 불멸의 “천재성”에 대해 영구적인 유산으로 남긴다. 도널드 보이스 (Donald W. Boose)에 따르면 실제로 이 계획은 1950년 6월 19일에 승인된 육군 G4 계획의 별지인 SL-17을 기초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우군이 방어할 수 있는 낙동강 전선으로 철수하면서 동시에 인천 부근의 상륙작전을 구상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서 사용된 지도는 더 많은 지형학적 세부 묘사와 축적으로 표현된 장점이 있다.

이 면밀한 연구분석은 한국전쟁 첫 해에 수행되었던 전투와 전역에서 부대 임무수행과 효율성의 분석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유엔

사, 미 8 군 및 군단 및 사단 지휘관 21명의 지휘관간의 역동적이고 진전된 관계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수행했던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저자의 조사와 평가는 지각이 있고 공정하다. “한국전쟁에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훌륭한 지휘능력을 보였지만 일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균등한 지휘능력은 결코 다 그렇지는 않을 지라도 전쟁 초기에 미 육군에게 당면했던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220쪽) ‘한국전쟁에서의 맥아더와 그의 장군들’은 한국 전쟁의 부대 지휘능력과 작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탁월한 연구이다.